



철의 노동자

조합원 중심!
단일노조 완성!
생존권 사수!

제14 - 40호 / 2026년 09월 17일 / FAX(031)680-6865 / md.kwmu.kr /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

노동조합은 누구와 대화하고 있나

- 왜 대표이사과 총괄대표 앞에서만 멈춰 서는가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벌써 58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다음 주면 주석인데, 유가족은 아직도 아들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 유가족은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작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급급하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번주 14일(월), 판교 본사와 평택공장에 중대재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이 있었다. 두달이 지난 지금, 무엇이 남았다고 압수수색인가,

■ 책정된 예산 만큼에서 나온 1차 임금 제시안

기대하지 않았지만, 1차 임금 제시안이 나왔다. 만도지부가 과반노조가 아니지만, 다수노조 교섭에 사무직과 기능직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것임으로 앞으로는 구성원이라 표현하겠다.

일단 사측의 임금 제시안에 대한 구성원들 생각은 과연 어떠했을까? 조합원은 기본급과 일시금, 사무직은 일시금과 선 성과급에 대해 저마다 엄중한 평가를 했을 것이다. 안은 사측이 제시했을지 모르지만, 사측만 모르고 있는 구성원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노동조합은 올해 임단협에서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재정립하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의 결실을 구성원과 함께 나눌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협의를 통해서도 의료비 지원, 퇴직연금제도 DC형 추가, 용자금 적체 해소 등 구성원의 바람을 충분히 반영할 것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대재해와 임단협 교섭에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이 있다. 왜 대표이사과 총괄대표 앞에만 가면, 요구가 멈춰 서는가? 왜 결정할 수 있다면서 정작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는가? 대표이사과 총괄대표가 만도의 문제를 결정할 수 없다면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

- 퇴직 후 임금 절벽, 사무직과 기능직 모두가 곧 마주할 현실

정년연장은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다. 거창하게 고령화나 사회적인 문제를 끌어다 붙이지 않아도 정년퇴직자가 마주할 소득 절벽을 해결하자는 절박한 요구다.

현재까지 정년연장에 대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지 불분명하다. 좀 더 확인해야 하겠지만, 노조나 구성원 과반의 찬성 없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는 제도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장 노동자의 설움을 알고 있고 지금도 장애를 가진 대통령, 노동자의 아픔을 대변해 온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우리는 너무 큰 기대를 한 것일까?

□ 부산에 이어 인천시 공무원 노조가 정년연장의 불씨를 지핀다.

독일, 일본, 덴마크 등 정년연장은 이제 해외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미 시작됐다. 2025년 10월, 부산광역시 공무원 노조와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에 합의했다.

2026년부터 매년 1년씩 정년이 늘어나 2030년이면 65세가 되고, 임금체계와 근로시간은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회사 사정이 있어 어렵다"는 말 앞에, 이미 임금 손실 없이 정년을 늘린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 소득공백의 대안 마련과 차별 철폐의 논의를 시작하자.

앞서 언급한 부산시의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1년씩 늘여가는 정년연장이기에 결국 소득공백은 발생한다. 따라서 정년연장이라는 원칙 아래 소득공백을 최소화하려는 현실적인 안이 필요하다. 이번 임단협 교섭을 통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또 한가지는 이번 임단협에서 초임 수준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사무직과 기능직 모두 연차사용 등 각종 수당의 차별 적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구성원의 부당함은 곧 차별이고 바꿔야만 한다.

사무직 연차사용촉진의 취지는 휴가 사용의 자율적 보장이다. 현재 만도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언제까지 사무직의 희생만 강요할 것인가?